

● '99/08/31 공장 화재

30일 20:38분쯤 대전 대덕구 신일동의 샌드위치 패널 생산공장인 신우산업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과 자재 등을 태워 1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10여분만에 완전 진화됐다.

불을 처음 본 경비원에 따르면, "식당에서 물을 떠서 나오는데 공장 끝 부근에서 불꽃이 '번쩍'하더니 순식간에 불길의 치솟아 공장으로 번졌다"고 말했다.

경찰은 화재 당시 발화지점인 공장건물에 사람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전기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조사중이다.

● '99/09/05 시장 화재

5일 03:3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제일시장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.

불은 시장 건물내 1백여 개 점포가운데 26개 점포와 건물 뒤 가정집 5채를 태운 뒤 05:10분께 진화됐다.

그러나 새벽시간이라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

소방서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1백60여명의 소방관과 펌프차 등 40여 대의 장비를 출동시켜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옷가지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가

가 발생,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.

● '99/09/21 상가 화재

21일 01:07분께 서울 종로구 효제동 상가건물 내 2층 카페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주인 등 2명이 카펫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사 숨졌다.

이날 불은 1, 2층 전체 70평 가운데 탁자와 의자 등 내부 40여 평을 태워 1천8백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.

경찰은 갑자기 '핑'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로 미뤄 주방에서 새어나온 LP가스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이다.

● '99/09/21 호텔 화재

21일 04:30분께 제주도 연동 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3층 계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지하 1-3층 계단부분을 태우고 50분만에 진화됐다.

불이 나자 호텔 2층에 투숙했던 이 모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척추를 크게 다치는 등 모두 3명이 부상했다.

지하 2층의 단란주점 종업원 한 모씨는 "일을

마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 3층 증기탕 계단 쪽에서 '팡'하는 폭발음이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"고 말했다.

경찰은 지하 3층 계단에 부탄가스통이 널려 있는 점으로 미뤄 가스를 흡입하던 청소년들이 담뱃불 등을 버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.

● '99/09/22 차량 화재

22일 10:00쯤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공단 앞 사거리에서 유조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.

이 사고로 유조차에 실려 있던 휘발유 1만4000ℓ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불이 나 유조차와 스포티지 승용차,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 4대 등 차량 6대가 전소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.

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,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열기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.

● '99/10/08 지하통신구 화재

8일 04:17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지하철 6호선 공사장 부근 지하통신구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, 용산구 남영동 등 일대 2만여 가구의 전화통화가 끊겼다.

불이 난 곳은 지하 약 7m 지점으로, 공사장을 통과하는 지름 77mm짜리 대형 통신케이블 25가닥이 20m가량 불에 탔으며 검은 연기가 복공판 사이로 새어 나와 삼각지 일대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.

불이 나자 소방차 23대와 소방관 90여명이 출

동, 05:06분께 진화작업을 완료했다.

● '99/10/22 실험실 화재

21일 17:45분께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내 경북테크노파크 공장형 실습동 동력실에서 기기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동력장치(에어 콤프레셔)와 동력실 23㎡를 모두 태워 6백여만 원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진화됐다.

불이 날 당시 건물내에는 공대 학생과 산업체 관계자 등 30~40여명이 실습 중이었으나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전원 대피, 인명피해는 없었다.

경찰은 기계를 제작하는 실습동에 동력을 전달하는 에어 콤프레셔 모터부분의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.

● '99/10/24 열병합발전소 화재

24일 15:00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열병합발전소내 냉각탑 커버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진화됐다.

불은 15m 높이 냉각탑 꼭대기에 설치된 지름 7m, 높이 5m의 냉각탑 커버를 교체하기 위해 인부 2명이 용접기로 분리작업을 하다 용접불뚝이 커버 속 플라스틱판에 옮겨 붙어 일어났다.

불이 나자 서현소방서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50여명이 출동,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

발전소측은 불이 난 냉각탑이 발전기 터빈에서 배출된 물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11개 냉각탑 가운데 8번째로 겨울에 가동이 중단되는 6개 냉각탑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.

발전소측은 또 불이 난 냉각탑에서 70여m 떨

어진 발전기 건물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 분당일대 난방과 온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.

● '99/10/29 방화 추정 화재

29일 03:00시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효정 아파트 상가 1층 효정 비디오가게에서 불이 나 26평 규모의 가게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천여 만원 상당(경찰 추산)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진화됐다.

경찰은 “불이 나기 수십분 전 가게에서 주인 부부가 다투다 나간 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게에 들어갔다 나가면서 불이 났다”는 아파트 경비원의 말에 따라 방화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.

● '99/09/03 미국 산불

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간지대를 휩쓸고 있는 산불이 발생 6일째인 2일 현재까지도 좀처럼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.

캘리포니아주 산림국은 맞불 및 방화제 공중 살포 등으로 약 30%가 진화됐다고 밝혔다.

지난 28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애로우헤드 호수 북쪽 인근 산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지금까지 인근 애플밸리 산악지대와 샌버나디노 국립산림지 6만 에이커를 태우고 빅 베어 호수 북쪽 국립산림지 등으로 번지고 있다.

캠프파이어의 덜 꺼진 불씨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는 1970년 11월 5만6천 에이커의 삼림을 태운 샌버나디노 산불 이후 미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30년만에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다.

지금까지 수십 채의 산간 가옥과 50여 개의 구조물이 불타 피해액이 19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● '99/10/22 디스코테크 화재

오스트리아의 디스코테크 2곳에서 22일 밤 잇따라 화재가 발생, 모두 84명이 부상했다.

이날 수도 빈에서 남서쪽으로 190km 떨어진 바트 고이제른 근처 아가타 마을의 ‘조이 디스코’에서 화재가 발생, 74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이 가운데 10여 명은 중태다.

사고 당시 디스코테크에서는 새 주인의 인수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, 경찰은 홀 바닥에 발목 깊이로 깔려 있던 발포성 플라스틱 소재의 공에 담뱃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
사고 당시 비상구가 슬롯 머신으로 막혀 있어 약 200명의 젊은이들이 주 출입구로 몰리면서 아비규환을 이뤘으며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유독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고 구조 관계자들은 밝혔다.

한편 이날 독일과의 국경도시인 잘츠부르크시 북쪽 16km에 있는 오베른도르프의 한 작은 디스코테크에서도 화재가 발생, 10명이 부상했으며, 이 디스코테크의 마루도 발포성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. ☹